

왕벚나무의 自生地

이창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Natural Habitat of *Prunus yedoensis* Matsumura

Tchang Bok Lee

Emeritus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Yoshino-cherry tree(*Prunus yedoensis* Matsumura) has a restricted natural habitat and, is protected as a natural monument. Although being rare, the ambiguity in the origin of this species and committing a blunder in assigning tree for protection make more difficult to conserve the trees of the species. There has been a hypothesis that Yoshino-cherry tree(*P. yedoensis* Matsumura) comes from a hybrid between *P. pendula* and *P. lannesiana* in Japan. There being absence of *P. lannesiana*, *P. sargentii* Rehder replaced its role in Korea. But *P. yedoensis* do not share habitat with *P. sargentii*. In the near place of Mt. Daedun(Chollanam-do), ca. 50-year old tree of *P. yedoensis* grow and, its probable mother trees were not there. A few trees near the temple and town are not known for their origin. The life expectancy of *P. yedoensis* is estimated 60 as years, so there may not be older trees. In Cheju-do, *P. pendula* for. *ascendens* at Shinrae-ri was erroneously assigned for *P. yedoensis* and protected officially. At Bongae-dong 1 of 3 protected trees was proved to be a *P. pendula* for. *ascendens*. As the native population of *P. yedoensis* in Cheju-do is small, it needs to inventory all of individuals and careful management to succeed in the conservation of *P. yedoensis*.

대둔산의 왕벚나무 자생지

1994년 4월 26-27일에는 전남 대흥사 주변에서 활짝 핀 왕벚나무의 꽃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었다. 대흥사 주변을 포함한 대둔산 일대는 명승 제 4 호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울창한 난대림속에서 일찍부터 꽃망울을 터뜨린 동백나무에 이어 올벚나무가 뒤따르고 황칠나무와 붉가시나무 등의 싱싱한 초록빛이 시선을 끌어 당겼다. 대흥사 경내에서 자라는 한그루의 왕벚나무는 꽃이 만발하여 옛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같은 또래의 왕벚나무 한그루는 산중의 진불암 둘에서 자라고 있었기에 살펴보니 지면부의 둘레가 47cm이고 지상 50cm 정도에서 3개로 갈라져서 10m정도 자랐다.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산중에서는 보지 못하였다. 계곡에서 자라는 다른 벚나무류 중에서는 올벚나무가 제일 많았고, 또 가장 큰 나무도 보였다. 가슴높이의 지름이 77cm인 것도 잘 자라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화엄사의 올벚나무의 지

름이 65cm이므로 귀중한 자원임에는 틀림없으나 속에 구멍이 있어 앞으로의 보존이 어려워 보인다.

화엄사의 올벚나무가 병자호란 이후에 가꾸기 시작한 군용림의 유물인 점으로 보아 이 계곡에 남아 있는 것도 같은 유물의 하나일 것이다. 해남읍에서 대홍사로 들어가는 길가에는 과거에 가꾸어 오던 왕벚나무의 줄나무가 더러 보인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무는 삼산남초등학교 현관 원편에서 자라는 3그루의 왕벚나무이다. 가장 큰 것의 가슴 높이 지름은 93cm이며 가슴 높이 정도에서 3개로 갈라졌는데 갈라진 줄기의 밑지름은 46cm되는 것이 두 그루이고 40.5cm인 것이 한 그루이며 높이 14m 정도이다. 이상 세 그루의 왕벚나무는 1949년에 대홍사 경내에서 자라던 어린 나무(5-6년생 정도)를 당시 6학년 학생들과 담임선생이 함께 옮겨 심었다고 한다. 수령이 50년 정도로 짐작되므로 틀림없는 사실로 믿어진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학생들은 자라서 본 지역사회의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삼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설명이었다.

캐어온 어린 나무가 자라던 주변에는 종자를 뱗었던 큰 나무가 있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어미나무들은 적어도 어린 나무보다 10년 이상 늙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수령이 60년생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국민학교에서 대홍사로 들어가는 가로수 중에서 가장 큰 나무는 가슴 높이의 지름이 74.5cm인 팽나무이며 바로 옆에 지름 35.5cm의 왕벚나무가 한 그루 자라는데 팽나무와 왕벚은 대로를 향한 한 농가의 산울타리로 남아왔다. 대홍사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왕벚나무의 지름은 47cm로서 수령은 58 ± 3 년생으로 측정된다. 해남경찰서 삼산지서 경내의 왕벚나무는 왜정시대부터 자라온 나무라고 하며, 이들 13주 중에서 가장 큰 나무의 지름은 38.5cm로서 수령은 41 ± 5 년 정도이다. 신흥리 노인정 주변에서 살아남은 왕벚나무도 지름이 42cm로서 수령은 45년 내외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왕벚나무의 수령은 60년생 전후로서 왜정시부터 자라온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같다. 수령측정에 있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은 생장추로서 나무의 한 부위만을 측정한 관계로 가짜 나이테(僞年輪)를 가려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길가에 남아 있는 줄나무 외에 천연기념물 제 173호로 지정된 두 그루의 왕벚나무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자라고 있다. 하나는 대홍사 경계의 도로변에서 자라고 하나는 여기서 1km 떨어진 사면에서 자라며 196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당시의 크기와 현재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번 호	해발고	높 이	지 름	측정년도	측정수령
1	150m	15m	25.5cm	1965	-
	150m	12m	27.0cm	1994	69 ± 5 년
2	200m	7m	9.6cm	1965	-
	200m	15m	30.5cm	1994	67 ± 5 년

수령은 67-69년생 내외이며 삼산남초등학교에서 자라는 나무를 생산한 어미나무보다 늙은 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꽃이 많이 달리는 관계인지는 모르나 일본에서의 예는 50-60년생에서 죽는다고 하였다. 대홍사 경내에 왕벚나무의 늙은 나무가 없는 것은 이 나무의 짧은 수령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일까? 수령측정은 산림청 임업연구원 조재명 前원장의 배려로 환경생태과의 조현재 연구사가 생장추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왕벚나무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왕벚나무는 일본의 국화이다. 꽃이 한꺼번에 피었다가 말끔히 떨어지는 모습이 일본 사람들의 기질과 같다고 생각하여 나라의 꽃으로 삼아 왔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9년 왕벚나무 표목 1,000주를 미국으로 보냈고, 1912년에는 3,100주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6년 경부터 진해와 마산 근처에 살던 일본인들이 심기 시작하였으리라고 보고 있다. 1935년에는 제주도 서귀포 김찬익 면장이 신효리에 줄나무로 가꾸어서 왕벚꽃터널을 만들었다는 기록 등

으로 미루어 60년 전부터는 널리 심기 시작한 것 같다.

대홍사로 들어가는 줄나무의 수령이 50년 내외라는 점으로 미루어 서귀포와 비슷한 시기에 심은 것 같이 느껴진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도 줄나무와 비슷한 수령이고 사찰 경내에서 자라던 늙은 나무는 사라졌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첫째 나무는 사찰경계의 도로변에서 자라고 또 한 나무는 여기에서 1km내외의 거리에 있다. 지정 당시에는 작은 나무였으나 30여년이 지난 오늘에는 축대와 복토 덕분에 오히려 첫째 나무보다 커졌다. 일본의 경우 왕벚나무의 수명은 60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홍사 경내의 것은 늙어서 모두 죽고 그 후에 가꾼 것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왕벚나무는 1901년에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일본 도쿄교외의 꽃집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토쿄대학교 부속식물원에서도 한 그루 자라고 있었으나 1911년 50년생 정도에서 죽었다. 꽃집에서 자라는 것에 대하여 명명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일본 전국에서 자생지를 찾았으나 모두 허사였다. 1907년 4월 14일 제주도 홍노리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프랑스의 타케신부가 한라산에서 제주 사람이 사옥이라고 하는 식물을 채집하여 유럽으로 보냈다. 이것을 베를린대학교의 Koehne교수가 왕벚나무의 변종으로 발표하였다. 이 표본의 일부는 일본의 교토대학의 표본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왕벚나무의 변종이 한라산에서 발견됨에 따라 왕벚나무의 고향이 한라산이라고 믿게 되었다. 일본 안에서 자생지를 찾지 못한 도쿄대학교의 小泉교수는 1932년 4월 20일 제주도로 와서 제주영림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4월 24일 한라산 남쪽 사면의 해발 600m 지점에서 사옥은 물론 이의 기본종인 왕벚나무가 같이 자라는 곳을 찾았다.

한라산에서 왕벚나무를 찾았으나 이것이 어떻게 도쿄 교외의 꽃집까지 갈 수 있었느냐는 문제는 풀지 못하였다. 도쿄에서 자라던 나무는 수령 60년이 지나자 죽어버렸고 이 나무의 내력을 알고 있던 사람도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이제 남은 것은 한라산에 자라는 왕벚뿐이다. 왕벚나무의 자생지를 일본 국내에서 찾지 못한 뒤 일본 학자들 중에서는 잡종설을 제창한 학자가 있었다. 즉, 올벚나무와 오오시마벚나무(*Prunus lannesiana*)의 잡종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왕벚나무와 올벚나무가 자라고 있으나 오오시마벚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잡종설을 제창한 학자가 있다. 한창열 박사는 올벚나무와 산벚나무의 잡종이 왕벚나무이며 후자는 올벚과 산벚의 중간형질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것을 받은 박만규 박사는 올벚나무와 산벚나무가 많이 자라는 가운데 왕벚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이 대홍사 주변이라고 하였다.

필자가 살핀 바에 의하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올벚나무는 많이 자라고 있다. 그러나 산벚나무가 자라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제주도에서 자라는 왕벚나무가 모두 한라산에서 자라는 왕벚나무에서 퍼진 것은 아니다. 서귀포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이미 교잡되었으리라고 본다. 그러기에 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신례리와 봉개동에서 자라는 것들을 천연기념물 제 156호와 159호로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타케신부가 발견한 왕벚나무의 옆에서 자라던 어린 나무는 그해 11월에 서울에 이식하였다고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잊혀지고 일본서 들어온 왕벚나무와 섞여졌을 것이다.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에서는 조직배양으로써 지정된 모수의 종식을 하고 있었으나 새들을 종자를 먹기 때문에 종자수집이 무척 어렵다고 한다. 왕벚나무란 명칭은 1963년 4월 자생지를 담사할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다. 필자는 1947년 서울대학교 농대연구 보고서에서 텔벗나무란 이름을 적용하였다. 이는 꽃대와 꽃받침통에 텔이 많고 또 암술대에 둘은 텔의 특색을 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태현을 비롯한 일부 원로 학자들은 일본의 국화이므로 '사꾸라'를 택한다고 하였다.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한라산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대홍사 옆에서 자라는 왕벚나무와 대홍사로 들어가는 길가에서 자라는 왕벚나무와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산지에서 자라는 두 그루의 왕벚나무가 왕벚나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산벚나무와 올벚나무가 무성한 가운데 생긴 잡종이라고 본 것은 지나친 추측이라고 느껴진다. 두 그루의 왕벚나무 후손을 줄나무로 심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왕벚나무는 종자로서 번식이 되고 새들이 씹겨 먹는다. 접목만으로 종식시킨 것이 왕벚나무라면 자생여부를 가리기는 쉬울 것이다.

한라산의 왕벚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대둔산의 왕벚나무의 자생지에 대한 의심이 깊어짐에 따라 왕벚나무 자생지의 본거지인 한라산 중턱에서 자라는 왕벚나무의 자생성에 한 가닥의 희망을 걸었다. 한라산에서 자라는 왕벚나무가 우리나라의 고유종이라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왕벚나무가 자라고 있는 신례리와 봉개동을 자생종이 자라는 곳으로서 보존해 왔다. 필자는 한국자생식물연구회 회원들과 같이 제주도의 현지를 찾아간 일이 있었으나 시기가 일어서 꽃이 핀 것을 보지 못하였다. 대둔산록의 왕벚나무를 조사한 다음 신례리에서 자라고 있는 개체에 희망을 걸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의뢰하여 다시 조사하도록 하였다.

임업연구원의 이유미 박사는 남부육종장 직원과 같이 신례리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를 조사하였다. 불행하게도 왕벚나무는 없었고, 주위에 있는 것은 옻벚나무란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 하였다. 봉개동에서 지정된 나무는 세 그루였으며 그 중 한 그루는 역시 옻벚나무이고, 다소 떨어진 숲 속에 늙은 왕벚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고 한다. 봉개동에서 자라는 왕벚나무는 5.16 횡단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자랄 뿐아니라 근처에 심은 가로수가 계통을 알 수 없는 왕벚나무이기에 순계를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조사 도중 관음사 근처에서 늙은 나무 한 그루를 포함한 여섯 그루의 왕벚나무를 찾아내었다. 왕벚나무를 처음 발견한 곳은 한라산 북사면으로 프랑스인 타케 신부가 1907년 4월 14일에 채집하였다. 그 후 1932년 4월 20일 일본 동경대학교의 小泉교수가 한라산 남쪽 사면의 해발 600m지점에서 다시 왕벚나무를 찾았다. 고이즈미는 남사면에서 발견하였고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후 우리나라의 애호가에 의하여 14주가 발견되었다고 한다(구전에 의함). 제주도 서귀포 근처에 일본산 왕벚나무가 심어진 공식기록은 1935년이다. 뿐만아니라 진해와 마산 근처에서 살던 일본 사람들은 1906년부터 심었으리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한라산 중턱에 블록을 붙인 왕벚나무가 오래도록 살아 남도록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남사면에서 자라던 곳이 신례리 근처라고 하면 북사면에서 발견된 곳은 봉개동이나 관음 근처였다고도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라산에서 발견되었다는 14주의 분포도를 작성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현지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산림청 남부육종장에서는 왕벚나무의 조직배양으로써 묘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초연구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상호 협조와 성의가 요청될 따름이다. 현 상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신례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은 물론이고, 대둔산의 왕벚나무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손님이 주인자리를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결 론

1. 본 조사에서 대둔산에서 자라는 왕벚나무를 자생종이라고 증명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현존 왕벚나무가 옻벚나무와 산벚나무의 잡종이라고 내세운 학자가 있었으나, 근거가 부족하다. 필자는 옻벚나무는 여러 주 확인하였으나 왕벚나무 옆에서 자라고 있다는 산벚나무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산벚나무와의 잡종설은 일본학자들이 내세운 옻벚나무와 *Prunus lannesiana*와의 잡종가설을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후자가 없기 때문에 산벚나무를 빌렸다고 본다.

2. 한라산 중복 신례리에서 자라는 종종에는 왕벚나무가 없고 옻벚나무뿐이었다. 따라서 천연기념물로 잘못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자라고 있었는데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3. 봉개동의 왕벚나무는 일부 틀림없으나 옻벚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다. 그러나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식재한 왕벚나무는 혈통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보호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통을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순종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 조치를 하루 빨리 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인용문헌

- Matsumura. 1901. Tokyo Bot. Mag. 15:100.
- Nakai, T. 1916. Fl. Sylv. Kor. 5:25.
- 문체부문화재관리국. 1993. 문화재대관. pp. 288-293
- 이창복. 1994. 자생식물. 31:2-4.
- 이창복. 1996. 자생식물. 38:6-8.
- 정태현. 1957. 한국식물도감상권. 211p.